

보성전문과 고려대 이어주는 연결고리, 회화나무



법대, 경영대, 정경대, 생과대 등 4개 단과대학장이 지난달 21일 종로 조계사를 방문해 회화나무 종자를 분양 받는 '역사 보듬기' 행사를 진행했다. 종로는 보성전문학교가 처음 문을 연 곳이다.

조계사 회화나무 종자로 고려대 발원지 기리다

모교 법과대학(학장=명순구·법학81), 경영대학(학장=권수영·경영학과 교수), 정경대학(학장=이재원·통계학과 교수), 생명과학대학(학장=김규혁·임학78, 환경생태공학부 교수)이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고려대학교 발원지에서 역사 보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 모교 참석자들은 조계사 경내 회화나무 종자를 분양 받고, 조계사 터가 고려대학교의 발원지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에 대해 협의했다. 이 행사는 종로 조계사가 보성전문학교의 첫 출발점이라는 것에 기인한다.

보전, 조계사 그리고 회화나무

고려대학교는 1905년 보성전문학교의 이름으로 설립됐다. 보성전문학교의 최초 위치는 종로구 박동(수송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보성전문학교 설립자 이용익 선생은 관립한성아어학교(러시아어 학교) 건물을 빌려 개교했는데, 곧 아어학교에 이웃한 김교현(대종교 제2대 교주)의 가택을 매입해 학교의 면모를 갖추었다. 김교현 가택의 위치가 현재 종로 조계사다.

이후 보성전문은 조계사 인근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사를 했고, 1932년 인촌김성수 선생이 인수한 이후 1934년 현재의 안암동에 새로운 터를 잡아 오늘의 고려대에 이르렀다. 결국, 고려대의 발원지는 종로 조계사 터인 셈이다.

조계사 터에는 여전히 수려한 회화나무 한 그루가 있다. 예로부터 회화나무는 학자나무라 하여 궁궐의 마당, 서원이나 향교 등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에 즐겨 심었

다. 이 학자나무가 고려대의 발원지에도 있었던 것이다. 보성전문과 회화나무는 그렇게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다. 아쉽게도, 여러 번의 이사를 거치면서 고려대의 핵심 이미지 중 하나였던 회화나무는 모교 역사 속에서 잊혀졌다. 현재 고려대학교 교목은 잣나무다.

명순구 법대학장은 본보 2015년 12월호에 '고려대학교 발원지, 회화나무 물결 치던 곳'이라는 글을 기고해, 종로 조계사 터가 모교의 발원지임을 밝힌 바 있다.

회화나무 종자 싹 틔워 안암동에 심는다

이날 '역사 보듬기' 행사는 회화나무를 다시금 고려대학교 역사에 담기 위해 열렸다.

법과대, 경영대, 정경대, 생명과학대가 함께 하게 된 배경은 1905년 보성전문학교가 법률과(현 법학전문대학원)와 이재과(현 경제학과, 경영학과)로 출발했다는 점에 착안해 법과대학, 경영대학, 정경대학이 함께 행사를 주관했다. 즉 현 법전원, 경제학과, 경영학과는 보성전문학교로부터 113년 역사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과학대학은 분양받은 종자를 배양하는 작업을 위해 함께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회화나무 씨가 발아하여 노지에 옮겨 심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각 단과대학 별로 캠퍼스 내 좋은 위치에 회화나무를 식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순구 법대학장은 "100여 년 전 보성전문 대선배들이 아끼고 가꾸었을 이 회화나무의 자손들이 안암동에서 물결치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른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정희영 기자



명순구 법대학장(왼쪽)이 조계사 지천 주지스님으로부터 회화나무 종자 주머니를 건네 받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채취한 회화나무 종자(오른쪽 사진)가 색을 띄우면 안암동 캠퍼스에 심겨질 예정이다.

회화나무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

회화(槐花)나무의 가지가 학자의 기상처럼 자유롭게 뻗어나간다고 하여 '학자나무'라 불렸다. 서원이나 향교 등 서생들이 공부하는 학당에도 많이 심었다. 중국에서는 집에 회화나무를 심어야 큰 학자나 인물이 나온다고 여겼고, 이 관념은 한국에까지 전파되었다.

회화나무는 '양반나무'이기도 하다. 과거를 보러가거나 합격하면 집마당에 회화나무를 심는 풍습이 있어 과거를 볼 수 없는 서민들은 심을 수가 없고 양반들만 심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양에서는 회화나무를 'Scholar Tree'로 부른다. 회화나무 이미지는 민족의 힘으로 성장한 교육기관인 고려대와 일맥상통한다.

종자 분양 행사가 있던 날 조계사 회화나무에는 가지마다 연등장식이 달려 있었다(배경 사진). 행사 기획자들은 '학자나무'로 알려진 회화나무가 모교 캠퍼스에서 지성의 밝은 빛을 피워올릴 것 기대하고 있다.